

광주서 '한국사 지킴이 100만대군' 서명운동



지난 11일 대한민국 홍보 동아리 '생존경쟁'이 광주 금남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부용·현선주·김다솜·정동원·김다혜 씨.

“한국사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에서 하루 동안 2600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어요.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죠. 역시 광주는 뭐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 송일국이 첫 번째 서명자로 나섰다. 그는 가수 윤종신, 배우 김윤진, 디자이너 이상봉, 축구선수 김병지 씨가 참여했다. 지난 7일에는 독도를 찾아 독도경비대와 관광객들에게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

사람들이 느끼고 필수과목지정이 이슈가 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생존경쟁은 온라인(www.millionarmy.co.kr)·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현재 8만 200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지역을 찾을 계획이다.

홍보 동아리 '생존경쟁' 대학생 10여명 활동  
서경덕 교수 동참... 10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하루 2600명 서명... 서울 이어 가장 많아 “역시 광주”

생존경쟁은 현재 최부용(33·생존경쟁 팀장), 현선주(21·서울여대 인문홍보학과 2년), 김다솜(21·생존경쟁 회장·성신여대 사학과 3년), 정동원(19·한림대 사학과 1년), 김다혜(21·중앙대 중어중문과 2년)씨 등 1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함께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인 '한국사 지킴이 100만대군'을 진행 중이다.

의 뜨거운 참여 열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교내에서 한국사 수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광주 동신여고 역사동아리 '역할'학생들이 584명의 서명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명운동 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고교생들은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면 당장 학습부담이 늘겠지만 포함되는 게 오히려 높은 참여열기를 보였다.

지난 2009년에는 동북아 평화를 주창했던 안중근 의사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대학생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매년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10명이 '100만 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일당백'으로 꼭 달성하겠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글·사진 양세열기자 hot@

재미작가 이하운씨 국내 첫 개인전

“고국에 대한 향수 쌀로 표현”

“쌔운 한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오브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티브를 만들어 내고 한민족의 얼과 철학적 담론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일부터 10월10일까지 도입 전남 옥과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 '청개구리보물찾기 그 3마당 A Frog's Treasure Hunt 이하운'을 여는 재미작가 이하운(여·51·Hayoon Jay Lee)씨. 그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쌀로 표현해내는 작가다.

작했고,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하면서 미국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동양과 서양문화의 듀얼리즘(Dualism)에 관한 영상 퍼포먼스,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두 달간 광주에 머물면서 광주와 쌀을 소재로 만든 작품을 비롯해 회화 작품 28점과 그동안 창작 세계와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주는 비디오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씨는 개막식인 14일에는 '한(恨) 그 아름다운 소리'를 주제로



이하운씨가 지난해 옥과미술관에서 선보인 '터부러! 광주'.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들어 내는 선율 속에서 쌀과 향이, 다듬이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퍼포먼스에는 양동명(대금), 조덕진(기타), 강명진(전자 바이올린), 고병희(대북)씨 등이 함께한다.

이씨는 “지난 두 달간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제 작품 세계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과 베이징 등에서 11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1-363-727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 출신 한글서예가 문관효씨 '원곡서예문화사' 수상

“후학 양성·새 서체 개발 공로”

진도 출신 한글 서예가 청농(靑農) 문관효(60·사진)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 교수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35회 원곡서예문화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권위를 자랑하는 원곡서예문화상은 지난 1978년 원곡 김기승(1909~2002) 선생이 한국 서예 증흥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작품 활동에 드러난 예술성과 한국 서예 발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원곡문화재단은 “문 교수는 후학



양성과 더불어 한글의 새로운 서체 개발로 서단에 발전에 공로한 바가 크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글 중심의 붓글씨로 쓴 작품으로 제작에만 3년이 걸렸다. 567년 동안 간파해온 한글에 담긴 세종의 정신을 깊은 역사와 작가정신으로 보여준 작품이라는 것이 서단의 평가다.

문 교수는 특히 567돌 한글날을 맞아 선보인 '훈민정음 언해본'(800 x 40cm) 서예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훈민정음 언해본을 기존의 한자 중심의 문헌과는 다르게

문 교수는 (사)한국서도협회 부회장, 예림서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상(2001), 로포서예문화상(2006) 등을 수상했다. 한편 문 교수는 10월2~13일 한국미술센터에서 '세종의 얼을 담은 청농 서예전'을 연다. /김경민기자 kki@

재입대 통해 전투조종사 꿈 이룬 박성범·천정민 중위

“우리 영공은 우리가 지킨다”

재입대로 전투조종사의 꿈을 이룬 신임조종사가 탄생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13일 광주 광산구 부대에서 열린 2013 제3차 고등비행수료식에서 신임 조종사 59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군 재입대를 통해 전투조종사가 된 박성범(27·학사 127기)중위와 천정민(27·학사 127기)중위도 있었다.

했다. 그는 재대 후 취업준비를 하다가 공군사관학교 이외에 공군조종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입대를 선택했다. 천 중위는 제11전투비행단에서 F-4, F-15K 엔진정비를 담당했던 공군 중사(항공고 35기)출신으로 이미 전투기와는 친숙하다. 그는 36년간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신 아버지의 추천으로 지난 2003년 항공고에 입회했다. 박 중위는 “교육과정 때 교관님들 앞에서 잠깐만 하면 아쉽게도 돌변해



천정민 중위(왼쪽)·박성범 중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나라의 영공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은 조종사가 아닌 마음”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천 중위는 “전투조종사에게 도전자 관을 잡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2011

년 조종장교로 재입대를 결정하게 됐다”며 “F-50을 타고 예전 근무지인 제11전투비행단으로 갔을 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유패한 정치참여 '광주시민정치학교' 개최

광주시민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정치학교가 열렸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풀고 정치와 시민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은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정치의 오늘을 진단한다. 오는 19일 '소통과일의 시대,

정치와 민주적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전남대 철학과 박규용 교수를 시작으로 9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에서 열린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수강비는 1만원이다. 문의 010-6685-0326. /양세열기자 hot@

보성 녹차 사진촬영대회 최영자씨 금상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난 10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녹차수도보성 전국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제39회 보성다향제 기간 중 개최됐으며, 총 227명이 참가해 출품된 1000여점의 작품들 중 심사위원이 최종 16점을 선정, 시상했다. 금상 수상자는 최영자(인천 거주·사진)씨의 '한국차박물관' 작품이 선정됐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성 제12회 동창(회장 정성수) 모임=15일(목) 낮 12시 유명회관(금남로 5가 교보빌딩 건너편) 062-512-5574.

종친회

▲(사)전주씨매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원례회의(회장 이의준)=20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사)전주씨매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원례회의(회장 이희화)=22일(목)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주)엘에이엠(쌍크엔젤)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음식을 쓰레기 종량제 및 시원한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공유=16일(금) 오후 4시 북구 신안동 132-8번지 062-432-8959, 010-9214-2682.

▲이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관한)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아시아실버밴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중 택1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소득 568만3000원)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학습동기향상 및 시간관리' 집

단상담 프로그램=20일·22일·27일·29일(오전 10시~11시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10명062-268-1388.

▲소통·방통 유패한 가족을 위한 영화치료·토일렛 참가자=28일(수) 오전 9시 30분~낮 12시 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녀 또는 학부모 062-268-1388.

▲장애인 무료 야구관람단=광주 거주 장애인으로서 27일, 28일(2일 중 선택)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관람단 모집. 접수기간은 22일(목) 오전 12시 선착순 100명 마감. 접수처 '장애인복지' 실천광주운동본부 062-511-003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지지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밀알중앙회 영상강화경대학 명

에 환경감사원 양성과정 수강생=접수일 9월 3일(화)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대상은 영산강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장소는 밀알회관 4층(북구 금남로 104) 062-526-0314, 010-2635-1080.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코칭2급 교육 개설 안내=9월 10일·16일·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상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장소는 협회교육실(광주 북구 두암동 569-16 5층)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령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 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 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부음

▲김성은씨 별세 태생·태육·유숙·육숙·향숙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상철씨 별세 철희·혜정·윤정씨 부친상=발인 15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조선업씨 별세 백우현(전 서울신문 만평화백·전 민주당 선대위 시민

캠프 대변인)·현옥씨 모친상=발인 15일(목) 여수장례식장 061-688-4444.

▲곽상영씨 별세 창욱(NC스포츠센터 대표)·창우(고흥유자클러스터 사업단 사무국장)·정화씨 부친상 김수정(사업)씨 부친상=발인 14일(수) 고흥봉황장례식장 061-833-4442.  
▲김학춘씨 별세 현우·진범·민영씨 부친상=발인 14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Advertisement for 'My Family's Fortune' (상가 故인의冥福을 빕니다) featuring a table of obituary notices with nam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